

3人3色, 초발심을 엿보다

김재영, 구경미, 표명희의 첫 소설집

서영채 · 문학평론가

김재영의 『코끼리』, 구경미의 『노는 인간』, 표명희의 『3번 출구』, 세 권 모두 2000년을 전후하여 등단한 신인 여성 작가들의 첫 소설집이다. 작가의 첫 책은 작가에게도 독자에게도 한 권뿐이며, 소설 쓰기에 임하는 작가들의 초발심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대체 이들은 왜 소설 쓰기를 택했고, 그 초발심은 장차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이런 시선으로 세 권의 책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최근에 나온 세 권의 소설집에 주목해 보자. 김재영의 『코끼리』, 구경미의 『노는 인간』, 표명희의 『3번 출구』, 세 권 모두 2000년을 전후하여 등단한 신인 여성 작가들의 첫 소설 집이다. 작가의 첫 책은 작가에게도 독자에게도 한 권뿐이며, 소설 쓰기에 임하는 작가들의 초발심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대체 이들은 왜 소설 쓰기를 택했고, 그 초발심은 장차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이런 시선으로 세 권의 책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김재영-절망적 현실에 대한 찡찡한 묘사

김재영의 『코끼리』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제작 「코끼리」나 「아홉개의 푸른 쏘냐」 같은 경우가 이런 경향을 대변해 주고 있다. 「코끼리」는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 「아홉개의 푸른 쏘냐」는 매춘부가 된 러시아 출신 무희의 삶을 다루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은 노동과 서비스의 수입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아시아 여러 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이주민들의 인권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김재영의 책은 주목의 대상이 되기에 족하다. 「코끼리」의 경우,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 아버지와 이른바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주인공이다. 한국에는 네팔 대사관이 없어 결혼 신고가 되지 않았고 게다가 조선족 어머니는 가출해버렸다. 호적도 국적도 없이, 초등학교도 청강생 신분으로 다니고 있는 아이의 삶은 그 자체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절단면을 보여준다. 러시아 출신의 무희로 마침내는 매춘부로 전락한 쏘냐의 이야기 「아홉개의 푸른 쏘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의 삶은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미성숙성과 아만을 날것으로 보여주며, 이런 점에서 김재영의 소설은 대상의 선택 자체부터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런 사회적 관심

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문제 삼을 수 있겠다. 「코끼리」의 무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구 공단이고, 주인공 소년과 네팔인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은 돼지 축사를 개조한 건물이다. 그곳의 쪽방에는, 미얀마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러시아 출신의 남녀들이 살고 있다. 술 취해 소리 지르고 노래하는 남자들, 보채는 아이를 어르는 여자들, 그리고 아들의 수술비를 위해 마련해둔 돈을 도둑맞은 남자의 절규 등과 같은 풍경들이 펼쳐진다. 이런 모습은 1970,80년대 소설에서 자주 등장했던 도시 빈민이나 노동자의 삶과 매우 닮아 있거니와, 이런 형식의 서사 속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접근해가는 김재영의 서사적 시선을 간취할 수 있다.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찌푸린 묘사를 지향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것일 터다. 이와 같은 리얼리즘의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디테일의 정치함과 묘사의 균형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김재영의 경우는 어떨까. 가구 공단의 풍경이랄지, 네팔인 아버지와 혼혈인 아들이 주고받는 대화 등으로 구성되는 디테일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묘사의 균형 감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이 가족이 백화점 입구에서 ‘양복쟁이 아저씨’에게 입장을 저지당하는 대목(돈을 보여주며 물건을 사러왔다는 데도 들여보내주지 않는 백화점은 글썽, 좀 이상하지 않은가)이나, 영어로 말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묘사 등은 어색하지 않은가. 주인공들의 불행을 좀더 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인해 서사적 균형이 흐트러진 것이 아닐까 싶다. 서사적 균형 감각 위에 설 때 윤리적 정당성은 더욱 빛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해 두자.

구경미-연극적 힘이 지니고 있는 활기

구경미의 『노는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노는 인간’, 철저한 무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자폐적인 인간상이다. 의미 없는 일상 속에서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해하는 젊은이도, 삶의 목표가 없고 게으른 이유는 애인에게 버림받는 직장인도 백수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두 자기 삶을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치유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멜랑콜리가 잠재해 있어,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만큼 답답하고 한심한 인물들의 세계다. 그런데도 이 우울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풍경에는 묘한 활기가 감돌고 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딱히 죽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어떤가. 이런 미지근한 우울이라면 죽음 같은 절망보다 더 가혹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그의 소설을 감싸고 있는 활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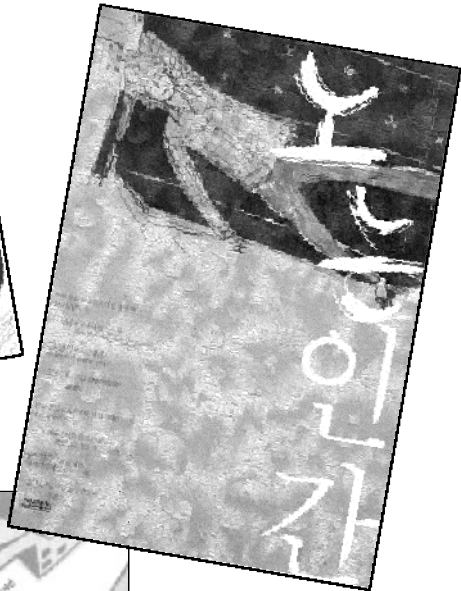
「초지일관 그녀는」에서 주인공 여자는 사람들을 붙잡고 묻는다. 왜 사느냐고. 후배에게, 친구에게, 다방 마담에게, 아버지에게. 아무나 붙잡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사후적으로 답해지는 것이며, 사전에 제시되는 답은 언제나 오답이거나 농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심사란 대체 어떤 것인가. 아마도,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보이는 괴물 같은 세상을 향해 약간은 어리광스럽게 어깃장을 놓는 사람의 심사가 아닐까 싶다. 혼자 사는 한량 출신의 아버지, 자식들과 세상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고립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삶을 그런대로 유머러스하게 끌어나가는 아버지, 그 늙은 백수를 바라보는 젊은 백수인 딸의 시선과 그 어깃장의 심사는 닮아 있다. 내 앞의 삶(이것은 또한 아버지의 삶이기도 한데)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설 수도 없다. 그것이 삶의 실상임을 주인공은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저 변죽이나 울리면서 어깃장을 놓을 수밖에.

구경미의 주인공들은 세상을 이미 너무나 많이 알아버린 조숙한 인물들이다. 그런데도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

김재영의 『코끼리』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끼리」는 네팔 출신의 이주노동자,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 아버지와 이른바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주인공이다. 한국에는 네팔 대사관이 없어 결혼 신고가 되지 않았고 게다가 조선족 어머니는 기출해버렸다. 호적도 국적도 없이, 초등학교도 청강생 신분으로 다니고 있는 아이의 삶은 그 자체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절단면을 보여준다.



구경미의 『노는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노는 인간', 철저한 무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지배적인 인간상이다. 예쁜 아내와의 이층 양옥집에서의 삶을 희망하는 한 남자가 있고, 이 남자에게 게으르고 전망이 없다고 버림받은 한 여자가 있다. 구경미는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가. 어느 쪽도 편들지 못하고 있다가 정답이다.



『3번출구』에 실린 8편의 단편들이 강렬한 것은 강렬한 대로 또 가볍고 경쾌한 것은 그것대로 제각각 맛이 살려져 있어 이채롭다. 10년간 모은 전세 자금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옥탑방 생활을 하는 노처녀 이야기에서부터, 다운증후군 아이를 가진 가족의 이야기, 퇴직금을 성형 수술에 쏟아 부은 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 또 남편의 묘지를 찾아가는 길에 새롭게 사랑에 빠져들어나가는 여자의 이야기 등 다양한 삶의 군상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다.

을 왜 사느냐는 질문을, 그것이 힐난인 줄 모르는 것처럼 아무나 붙잡고 해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연극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말과 행동은 그저 보통보다 약간 클 뿐이어서 한참을 보다 보면 과장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예쁜 아내와의 이층 양옥집에서의 삶을 희망하는 한 남자가 있고, 이 남자에게 게으르고 전망이 없다고 버림받은 한 여자가 있다. 구경미는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가. 어느 쪽도 편들지 못하고 있다가 정답이다. 하나는 현재 나를 규정하고 있는 바깥의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내 심정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경미는 그저 변죽만을 힘껏 두들겨댈 뿐이고, 그런 연극적 힘이 지니고 있는 활기가 이 소설집의 활기의 원동력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출발점이기엔 가능한 것이 아닐까. 출발점을 벗어나고 나면 곧바로 사막이고 황야다. 또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할 것인데, 어디에서 새로운 활기를 길어 올릴 것인가. 구경미가 점찍어 둔 곳이 어딘지 궁금하다.

표명희-다양한 소재 맛깔나게 다루는 솜씨

『3번출구』에서 표현되고 있는 표명희의 관심은 다양하고 다채롭다. 일단은 그가 다루고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 그렇다. 10년간 모은 전세 자금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옥탑방 생활을 하는 노처녀 이야기에서부터, 다운증후군 아이를 가진 가족의 이야기, 퇴직금을 성형 수술에 쏟아 부은 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 또 남편의 묘지를 찾아가는 길에 새롭게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여자의 이야기 등 다양한 삶의 군상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다. 그러면서도 책에 실린 8편의 단편들이 강렬한 것은 강렬한 대로 또 가볍고 경쾌한 것은 그것대로 제각각 맛이 살려져 있어 이채롭다.

이러테면, 그의 등단작이기도 한 「야경」은 자리보전을 하고 누운 엄마를 간호하고 있는 딸의 내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누구보다 여성적이고 예민하여 자신을 가꾸는 데 정성을 기울였고 또 자부심이 강했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

의 욕망을 마음껏 펼쳤던 엄마가 있고, 그런 엄마로부터 탈출을 원했던 딸이 있다. 딸의 희망은 엄마가 암으로 쓰러짐으로써 좌절되어 버린다. 이후로 딸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자부심과 생기가 사라져가는 엄마의 모습을 10년 동안에 걸쳐 지켜보아야 했다. 모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기 때문에 딸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갈 수 없었던 길에 대한 회한이 짙어지는 것,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인 엄마에 대한 애증의 복합감정이 솟아나오는 것 또한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딸의 유일한 숨통은 심야 수영이다. 집을 줄여가며 그 차액으로 병원비를 감당해온 엄마는 그것도 못마땅해한다. 「야경」은 마치 남의 일처럼, 이런 정황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딸의 내면이 심야 수영의 과정 속에 잘 응축되어 있어 단편다운 정제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런가 하면, 실리카겔을 무기로 부자 시어머니의 폭력에 복수를 하는 며느리의 이야기 「실리카겔」은 강렬한 맛을 지니고 있고, 또 초현대식 투명 건물과 누드 에스컬레이터라는 상징적 장치를 통해 과시적인 투명성이야말로 또 다른 은폐의 방식임을 묘사해내고 있는 「누드 에스컬레이터」는 금속성 표면처럼 산뜻하다.

표명희의 『3번출구』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소재들을 맛깔나게 다루어내는 솜씨랄까, 장인적 기질이다. 이 작가라면, 어떤 테마가 주어져도 나름대로 소화해서 읽을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물론 뛰어난 재능의 소산이고 그런 재능에 의해 씌어진 책이라면 독자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재능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또 한명의 전방위 소설가 혹은 프로 이야기꾼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넘쳐나는 세상이 아닌가. 그의 재능이 많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일 만한 이야기를 향해, 읽고 깊이 새겨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비단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